

濟州島의 人口成長

李 昌 基*

目 次	
I. 序 論	1. 出生率
II. 韓國의 人口成長趨勢	2. 人口移動
III.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	V. 結論-要約과 展望
IV. 濟州島의 人口成長要因	

I. 序 論

人口는 一次的으로 特定地域에 살고 있는 사람의 數를 意味하지만 現實的으로 社會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具體的인 人間集團을 表現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屬性을 달리하는 質的 內容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社會의 自然的·文化的·社會的·經濟的 諸 條件을 반영하는 社會的 產物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口는 나라와 社會에 따라 그 構造가 다르고, 한 나라에 있어서도 地域에 따라 差異가 생긴다.

人口現象은 또한 固定不變의 靜態的 構造가 아니라 出生과 移動이라는 3가지 要因에 의해서 不斷히 變化하는 動態的 過程이다. 이러한 人口過程은 과거의 人口構造에 의해 影響을 받음과 동시에 社會的 變化에 민감하게 反應하기 때문에 人口現象은 社會的 產物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 產物이기도 한 것이다.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專任講師

그러므로 人口分析은 한 社會의 社會構造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 이면서도 必須不可缺한 手段이 되는 것이며, 그 社會의 歷史를 理解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人口成長은 出生・死亡・移入・移出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나 出生과 死亡의 水準, 移動의 量과 方向은 그 社會의 社會・經濟的 與件의 影響을 받기 때문에 人口成長의 趨勢와 原因도 社會마다 각기 다른 것이다.

筆者는 本考에서 1955年 센서스 이후의 濟州島 人口成長趨勢를 概觀해 보고 그 原因을 밝혀 보고자 한다.¹⁾ 이러한 作業은 앞으로의 濟州島 人口에 대한 展望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餘他的 濟州島 社會研究와 各種 計劃樹立에 有用한 基礎資料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濟州島는 韓半島 最南端에 위치하여 陸地와 멀리 떨어져 孤立되어 있고 특수한 自然條件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獨自의인 하나의 生活圈을 形成하여 陸地와는 相異한 社會的 慣習과 社會制度를 유지해 왔다. 濟州島의 특수한 自然條件과 生活樣式은 濟州島의 人口現象에도 크게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濟州島가 經驗한 最近의 歷史的 事實들도 또한 오늘의 濟州島人口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日帝時代의 大量海外移出(특히 日本)과 1948년의 4·3事件은 아직까지도 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造에 반영되고 있으며 6·25動亂時의 軍人 및 避難民 移動과 1960年代 이후의 地域社會開發事業 및 産業化에 따른 移村向都現象은 濟州島의 人口變動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樣相을 매우 복잡하게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濟州島 人口는 陸地와 매우 다른 人口學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本考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의 人口센서스 資料를 주로 사용하고 필

註 1) 濟州島人口에 관한 지금까지의 論著는 다음과 같다.

- ①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濟州島 人口論~」, 서울신문사출판국, 1949.
- ② 高甲錫・崔英姬, 濟州島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第2號, 1966.
- ③ 姜相培, 濟州道內의 人口에 對한 研究, 「濟州教育大學論文集」第5輯, 1975.
- ④ 姜相培, 濟州市의 人口에 對한 研究, 「濟州教育大學論文集」第7輯, 1977.
- ⑤ 姜相培, 濟州道の 地域別 人口增減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濟州教育大學論文集」第8輯, 1978.

요한 경우에는 센서스 이외의 자료나 既存 論文의 data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현존 자료들만으로써는 濟州島의 人口現象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러한 자료의 빈곤 때문에 때로는 무리를 무릅쓰고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필자 나름의 推定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한 사회의 人口現象을 보다 선명하게 把握하기 위해서는 比較考察이 매우 有用한 方法이라 생각된다. 濟州島의 人口를 分析하는데 있어서도 陸地의 農村地域, 陸地의 都市地域, 與件이 비슷한 他道 등 여러가지 比較 對象을 생각할 수 있으나 本考에서는 주로 韓國 全體의 統計値와 比較 檢討하기로 하였다.

II. 韓國의 人口成長趨勢

解放 이후 韓國의 人口는 크게 4段階를 거쳐서 變化해 왔다고 指摘되고 있다.²⁾

第1時期(1945~1949)는 解放 直後 海外 同胞의 移入에 따라 年平均 約 5%의 높은 人口增加를 示顯한 時期이다. 이 時期는 人口移動에 의한 社會的 增加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이 時期의 海外移入 人口數는 約 200萬名 前後로 推定되고 있으며 自然增加率은 2.9% 水準으로 보고 있다.

第2時期(1950~1955)는 6·25 動亂으로 인한 막대한 人命損失과 出生率 低下로 人口의 自然增加가 매우 낮았던 시기이며, 約 40萬名으로 추정되는 北韓同胞의 大量南下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 기간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은 1.45%³⁾의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第3時(1955~1960年代初)는 休戰後의 社會的 安定에 따라 南韓人口가

2) 尹鍾周, 「人口學」, 人口問題研究所, 1973. pp.122~127.

3) 1949年의 센서스人口를 1955年 경제를 기준으로 조정한 수치이다.

Tai Hwan Kwon,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N.U.), 1975. p.7.

비로소 封鎖人口의 狀態에 들어선 시기이며 出生率의 급격한 上昇으로 年平均 2.88%의 높은 自然增加率을 보인 시기이다. 이때 出生한 者들이 최근 再生産期에 돌입함으로써 人口增加 抑制에 큰 負擔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第4時期(1960年代初 이후)는 死亡率의 繼續적인 低下에도 불구하고 出生率의 급격한 下落으로 人口增加率이 크게 둔화되는 이른바 「人口轉換」의 Ⅲ段階에 들어선 시기이다. 그간의 多産으로 個個人이 무거운 人口壓力을 느끼고 있었고 또 國家가 人口問題에 직접 干여해서 積極적인 人口政策을 施行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人爲적인 出生抑制에 의해서 出生力이 현저하게 低下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人口成長趨勢는 最近 韓國의 人口變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表 1〉 人口센서스資料에 의한 人口成長趨勢

센서스年度	總 人 口 ①		年平均人口增加率 ②	
	全 国	濟 州	全 国	濟 州
1955. 9. 1	21,502,386	288,801	2.88	-0.50
1960.12. 1	24,954,290	281,304	2.71	3.15
1966.10. 1	29,159,640	337,052	1.90	2.02
1970.10. 1	31,435,252	365,137	1.98	2.42
1975.10. 1	34,678,972	411,486	(1.51)	(2.32)
1980.11. 1 ^③	(37,419,390)	(462,423)		

① 各年度 人口센서스資料. 外国人除外. 一般家口와 準家口包含.

② $P_t = P_0 (1 + r)^t$

③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전수집계결과).

〈表 1〉에 의하면 1950年代 後半에 2.88%의 高率을 보이던 年平均 人口增加率이 1960~66年 기간에는 2.71%, 1966~70年 기간에는 1.90%, 1970~75年 기간에는 1.98%, 1970年代 後半에는 1.6%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1970~75年 기간의 人口增加率이 실제로 그 前期인 1966

~ 70 年 기간보다 높았느냐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⁴⁾ 대체로 1950 年代 後盤과 1960 年 初盤의 높은 人口增加率이 1960 年代 中盤부터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人口變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人口學的 要因은 바로 급격한 出生率의 低下이다. 1960 年부터 1975 年까지 15 年 동안의 粗出生率은 < 表 2 > 와 같다.

< 表 2 > 粗出生率의 趨勢(1960 ~ 75) (인구 1,000 명당)

연 도	조 출 생 율	연 도	조 출 생 율
1960	46.8	1968	33.1
1961	45.3	1969	32.5
1962	44.2	1970	31.4
1963	41.4	1971	31.5
1964	38.6	1972	31.8
1965	37.8	1973	31.3
1966	34.5	1974	29.5
1967	33.5	1975	28.1

< 資料 > ; KDI,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978. p.17.

權泰煥, 李海英 編, 「韓國社會 I」, p.30에서 再引用.

< 表 2 > 에 의하면 1960 年에 人口 1,000 名當 46.8 名이던 粗出生率이 계속 低下하여 1975 年에는 약 40 %가 감소한 28.1 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970 ~ 75 年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이 1966 ~ 70 年보다 上昇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1970 年 人口센서스의 많은 調査漏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人口移動統計와 出生力에 관한 全國標本調査結果를 통해서 1966 ~ 70 年의 실제 自然增加率은 2.2 % 內外가 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尹鍾周, 「人口學」, p.127) 1966 ~ 70 年의 人口增加率을 2.20 %로 가정한다면 1970 ~ 75 年의 人口增加率은 1.74 %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0 年 人口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전수집계결과)에 의하면 1975 ~ 80 年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은 1.51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여러가지 통계와 조사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실제는 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통계연감」(1980)(經濟企劃院 통계조사국)에 의하면 1970 年의 人口增加率을 1.58 %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안의 出生率의 變化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全期間을 통해서 變化의 速度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1960年부터 1962년에 이르는 3年동안은 약간씩 出生率이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도 休戰後의 「baby boom」이 지속되어서 45名 전후의 높은 粗出生率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出生率이 급격하게 低下한 것은 1963年 이후이며 특히 1963년부터 1966年까지의 4年동안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기간은 政府가 본격적인 人口政策을 施行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된다.⁵⁾ 그러나 아직 家族計劃方法이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고 婚姻構造의 變化와 人工流産에 의한 出生抑制效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7년부터 出生率의 低下速度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1970~73年 사이에는 粗出生率이 31.5名 전후에 거의 머물어 있다. 이것은 1966年까지 가속화하던 婚姻年齡의 上昇이 1966年 이후부터 점차 둔화된 데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⁶⁾ 또 한편으로는 家族計劃事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多子女價値觀이 여전히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人工流産이나 避妊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자녀 즉 「加外希望子女數」를 줄임으로써 人口增加抑制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아직도 3.9~3.7名의 높은 「理想子女數」를 유지하여 少子女價値觀의 實現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⁷⁾ 여기에서 종전의 施術中心的인 家

5) 1961年 國家再建最高會議가 家族計劃事業을 國家重要施策으로 採擇하고 이에 따라 保健社會部는 1962년부터 家族計劃事業의 推進을 위한 組織에 착수함과 동시에 家族計劃事業 10個年長期計劃을 수립하였다.

6) 最近 韓國女性の 平均婚姻年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年	1960年	1966年	1970年	1975年
20.5세	21.5	22.8	23.3	23.7

權泰煥·李海英 篇, 「한국사회 I」,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서울대), 1978. p.43.

7) 理想子女數에 관해서는 여러사람들의 調査가 있으나 다음을 參照할것.

① 尹鍾周, 「人口學」, 1973. p.231.

②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8. p.22.

族計劃事業에 대한 反省과 批判이 강하게 대두되었다.⁸⁾

1973년부터 出生率은 다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3년부터는 政府에서도 人口成長抑制에 대한 社會政策的 支援活動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人工妊娠中節의 制限의 合法化, 人口教育의 強化, 所得稅基礎控除의 制限, 不妊施術者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家族計劃事業의 과급효과가 子女價値觀과 出產行態에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年代에 출공 3.9名을 유지하던 理想子女數가 1971年에도 3.7名⁹⁾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1973년에는 3.1名¹⁰⁾으로 떨어지고, 다시 1976년에 2.8名¹¹⁾, 1977年의 한 조사에서는 2.6名¹²⁾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少子女價値觀의 進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60年 이후 韓國의 出生率 低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結婚年齡의 上昇과 人工流產 및 避妊法의 普及등 세가지 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

<表 3> 合計出產力(TFR) 變動의 構成要因(1960~75)

	1960 ~ 65	1965 ~ 70	1970 ~ 75
총 변화	-16.8 %	-17.6 %	-13.4 %
피 임	-1.7 %	-9.5 %	-5.9 %
인 공 유 산	-5.1 %	-4.5 %	-4.0 %
결 혼 연 령	-7.6 %	-4.2 %	-3.7 %
사 별·이 혼	1.3 %	0.5 %	0.2 %
기 타	-3.8 %	-	-

<資料> ; <表 2>와 同一 .

- 8) 代表的인 것으로는 韓國社會學會, 「韓國家族計劃研究活動의 社會學的 評價」(세미나 보고서), 1972.3.
- 9) KIFP, 「Report on 1971 Fertility - Abortion Survey」, 1973. p.18.
- 10) 宋建鎔·韓聖鉉,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p.31.
- 11) 朴丙台·崔炳睦·權豪淵, 「1976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p.83.
- 12) 鄭大然, 「The Second Round of CBDC Consumer Survey in Korea」, 大韓家族計劃協會, 1978. p.11.

이외에도 그간의 經濟成長이나 都市化, 產業化, 女性的地位向上 등의 여러가지 要因들이 出產抑制에 間接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1970年代 後半에는 人口成長率이 1.6%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男兒選好意識이 殘存하고 있고 1950年代 後半과 1960年代 前半에 소위 「baby boom」을 타고 출생한 世代가 1980年代에 再生産期에 돌입함으로써 당분간 1.5%線 이하로 人口成長을 抑制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Ⅲ.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의 人口成長은 韓國全體의 人口成長趨勢와 상당히 다른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社會가 2.88%의 가장 높은 自然增加率을 기록했던 1955~60年 사이에 濟州島는 오히려 年平均 0.50%의 人口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1955~60年 사이의 濟州島 人口가 減少를 기록하게 된 데는 두가지 점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1955年 人口調査와 1960年 人口調査의 集計方式의 差異를 들 수 있다. 1955年 人口센서스는 現地人口原則에 의하여 軍人등의 特別調査區 人口를 部隊所在地에서 集計하고 있으나 1960年 人口센서스부터는 常住人口原則에 의하여 入隊前 居住地로 還元集計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1955年 濟州島 人口에는 당시의 陸軍第一訓練所 將兵들이 모두 包含되게 된 것이다.

둘째는 休戰後 避亂民의 歸鄉과 陸軍第一訓練所의 廢止에 따른 軍人家族의 大量移出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要因에 의해서 1955~60年の 濟州島 人口는 減少傾向을 보이게 된 것이다.

「1960年 人口住宅國勢調査報告」의 結果解說에 의하면 1955年 濟州島

人口에 加算된 流動人口數를 約 35,000 餘名으로 推算하고 있다. 이 수치는 準家口員數 35,981 名(男子 35,440 名, 女子 541 名)과 근사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으로 보여진다.¹³⁾ 準家口란 普通家口 이외에 전혀 血緣關係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家口를 말하는데 그 대부분은 軍人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高甲錫은 1955~60 年の 濟州島의 純移出口數를 41,000 名으로 推定하고 이것을 1955 年 당시의 非正常的인 移入口數로 간주하고 있다.¹⁴⁾ 여기에는 軍人뿐만 아니라 그의 家族 및 殘留避亂民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推定이 어느 정도 正確하다면 1955 年の 正常的인 濟州島 常住人口는 約 250,000 名 정도로 볼 수 있고 1955~60 年 期間의 自然增加率은 年平均 2.3%~2.4% 전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수준은 같은 시기의 韓國全體의 自然增加率 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당시 濟州島의 出生率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960 年 이후의 濟州島 年平均人口增加率은 1955~60 年 期間과는 달리 全國平均値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1960~66 年の 濟州島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3.15%로서 全國의 人口成長率 2.71%보다 0.4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期間의 濟州島 人口增加는 出生率의 上昇과 濟州島 開發事業의 進行에 따른 移入口 超過現象에서 그 原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出生率과 人口移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詳論하겠지만 1960 年 이전까지는 全國 平均値보다 훨씬 낮았던 濟州島의 出生率이 1960 年을 전후해서 현저하게 上昇하기 시작하여 1970 年代 初葉까지 高出生率이 지속되고 있다. 全國의 出生率이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期間 동안의 出生率 上昇이 濟州島 人口成長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960 年代初의 各種 建設事業과 觀光開發事業에 따라 많은 陸地人이 濟州島로 물러들게 되었고 이러한 人口移入이 또한 濟州島의 人口成長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1960 年代初의 濟州島 人口移動에 관해서는 統計資料가 없어서 그 趨勢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의 出生力 水準을

13) 「1960 年 人口住宅國勢調查報告 1-1」(全國篇), p.176.

14) 高甲錫·崔英姬. 濟州道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第 2 號, 1966.

고려할 때 1960~66년의 濟州島 純移入人口는 約 9,000名 内外가 되지 않을가 한다. 1歲未滿兒比率을 바탕으로 1960~66년의 濟州島 自然增加率을 推定해 보면 同期間의 全國 自然增加率과 거의 비슷한 水準인 2.7% 前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出生率 分析 參照). 따라서 社會增加率은 約0.5% 前後로 볼 수 있고 1960~66년의 移入超過人口는 約 9,000名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高甲錫은 1960~65년의 濟州島 移入超過人口를 約 17,000餘名으로 推定하고 있으나¹⁵⁾ 당시의 濟州島 出生力 趨勢로 보아 이 推定値는 너무 誇張된 것이 아닌가 한다.

1966年 이후의 濟州島 年平均人口增加率은 1970年과 1975年 人口센서스 資料에 의하면 1966~70년에 2.02%, 1970~75년에 2.42%로 나타나고 있으나(表1參照) 다음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解釋上의 몇 가지 問題가 발견되기 때문에 資料의 再檢討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66~70년의 年平均人口增加率 2.02%는 前期인 1960~66년의 3.15%에 비해 무려 1.13%의 급격한 下落을 의미하고 1960~66년의 自然增加率 推定値 2.7%에 비해서도 약 0.7%가 낮은 수치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死亡率이 갑자기 上昇하지 않았다면 人口增加率 鈍化는 出生率의 급격한 低下나 大量移出超過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出生率이나 人口移動에 관한 統計에서는 이러한 根據를 발견할 수가 없다. 1歲未滿兒比率을 分析해 보면 1966~70년의 濟州島人口의 自然增加率은 그 前期인 1960~66年과 거의 비슷한 2.7% 水準이었을 것으로 推測되고(出生率 分析 參照) 人口移動에 있어서도 1970年 人口센서스의 10% 標本調査推定値에 의하면 1965~70년에 2,800餘名 정도의 移入超過를 보이고 있다. 自然增加率이 2.7% 정도의 높은 水準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移入人口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人口成長率이 2.0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15) 高甲錫·崔英姬, 前掲論文.

高甲錫은 이 論文에서 1960~65년의 濟州島 年平均人口增加率을 3.0%로 보고 自然增加率 2.3%, 社會增加率 0.7%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高甲錫의 이러한 推定은 自然增加率을 前期인 1955~60年과 同一하게 간주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社會增加率을 0.7%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移入超過人口는 10,000名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1970~75년의 濟州島 年平均人口增加率は 前期의 2.02%에 비해 0.4%上昇한 2.42%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死亡率이 갑자기 低下하지 않았다면 人口增加率 上昇은 出生率의 上昇이나 移入人口過程에서 그 原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歲未滿兒比率이나 母兒比의 趨勢를 보면 同期間의 濟州島 出生水準은 前期에 비해 크게 低下된 것으로 보이며 (自然增加率は 약 2.3~2.4% 水準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 出生率 分析 參照) 1975年 人口센서스의 5% 標本調査推定値와 「제주통계연보」의 住民登錄 轉出入申告에 의한 人口移動狀況등에 의하면 人口移動에 있어서도 移入超過가 아니라 大量移出超過現象을 보이고 있다. 出生率이 현저하게 下落하고 있고 大量人口移出이 發生했음에도 人口成長率이 上昇했다는 점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같이 人口센서스 統計資料에 解釋上의 모순이 發見되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註4參照) 1970年 센서스에 많은 調査漏落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1970年 센서스의 調査漏落이 精確하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公式의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人口學者들은 經濟企劃院의 事後標本調査結果를 바탕으로 약 3% 정도의 조사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調査漏落이 濟州島 人口에도 同一한 比率로 發生했느냐 하는 점은 간단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年 센서스의 濟州島 人口에 상당한 調査漏落이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筆者는 1966年과 1975年의 濟州島 人口를 精確한 것으로 보고 1970年 濟州島 人口의 調査漏落率을 몇 가지로 假定하여 1966~70年과 1970~75年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을 推定해 보기로 하였다.¹⁶⁾ 다음 <表4>는 1970年 센서스의 濟州島 人口 調査漏落率을 2.5%, 3.0%, 3.5%로 假定하여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算出해 본 것이다. 이러한 假定을 바탕으로 正確한 人口成長趨勢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出生率趨勢나 人口移動統計와 관련시켜 分析한다면 대체적인 人口成長傾向을 찾아 보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16) 실제에 있어서는 1966年과 1975年의 濟州島 人口에도 일정수준의 조사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은 양 연도와 비교한 相對的 調査漏落이 되는 셈이다.

〈表 4〉 濟州島의 年平均人口增加率 推定值 (1966 ~ 75)

1970년 센서스의 조사누락율(가정)	연평균 인구증가율 추정치(%)	
	1966 ~ 1970	1970 ~ 1975
2.5%누락	2.67	1.90
3.0%누락	2.80	1.80
3.5%누락	2.93	1.69

〈表 4〉에 의하면 1970년 인구센서스의 濟州島 調査漏落率을 2.5%, 3.0%, 3.5%로 假定했을 때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1966~70년에 약 2.7~2.9%, 1970~75년에 약 1.7~1.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 경우 중에서 1970년 인구센서스의 濟州島 調査漏落率을 약 3% 정도로 假定했을 때의 人口增加率이 당시의 自然增加率 水準 및 人口移動狀況과 크게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一致된 傾向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出生率 分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1歲未滿兒比率을 바탕으로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을 推定해 보면 1966~70년에는 그 前期인 1960~66년과 거의 비슷한 水準인 2.7%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1970~75년에는 1966~70년의 실제적인 全國 自然增加率 推定值 2.2% 수준보다 약간 높은 2.3~2.4%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인구센서스의 濟州島 調査漏落率을 3%로 보고 당시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을 이와같이 추정한다면 社會增加率은 1966~70년에 0.1% 전후, 1970~75년에 -0.5~-0.6% 정도가 된다. 이러한 社會增加率은 1970년 및 1975년 센서스의 人口移動統計와 대체로 一致한다.

즉 1966~70년 濟州島의 社會增加率을 0.1% 전후로 본다면 이 기간의 純移入人口는 약 1,400名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속에 1965~66년 사이의 一年間의 純移入人口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70년 인구센서스의 10% 標本調査에 의한 1965~70년의 純移入人口推定值 2,842名과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60~66년 기간에 濟州島人口는 大量移入超過現象을 보였고, 1960年代末에는 오히려

移出超過의 증후를 보이고 있는 17) 당시의 人口移動趨勢로 미루어 移入超過는 주로 1965年, 1966年, 1967년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1970~75년의 濟州島 社會增加率을 $-0.5 \sim -0.6\%$ 로 본다면 이 기간에 약 10,000~12,000名 정도의 純移出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1975年 人口센서스의 5%標本調査推定值인 13,992名보다는 다소 낮지만 住民登錄申告 集計에 의한 「제주통계연보」의 純移出人口 9,041名보다는 약간 높아서 실제와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1970年 人口센서스의 濟州島 調査漏落率을 약 3% 정도로 假定하고 1966~70년의 濟州島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2.8%(自然增加率 2.7%, 社會增加率 0.1%) 전후로, 1970~75년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1.8%(自然增加率 2.3%~2.4%, 社會增加率 $-0.5 \sim -0.6\%$) 전후로 보는 것이 비록 正確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없는 추정이 아닐까 한다.

姜相培는 「제주통계연보」의 年末常住人口調査 資料를 利用하여 1966~70년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약 3% 수준으로, 1970~74년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2.0~2.4% 수준으로 보고 있다.¹⁸⁾ 이것은 筆者의 推定值보다 약간 높은 水準이기는 하지만 年末常住人口調査 資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¹⁹⁾ 筆者의 推定值와 대체로 비슷한 傾向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筆者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를 概觀적으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된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를 요약하면 다음 <表 5>와 같다.

17) 「제주통계연보」의 住民登錄 轉出入申告 集計에 의하면 1969년에 2,405名, 1970년에 1,063名の 移出超過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통계연보」, 1970, 1971)

18) 姜相培, 濟州道内の 人口에 對한 研究, 「濟州教育大學論文集」第5輯, 1975.

19) 年末常住人口調査는 보통 邑·面·洞의 公務員이 統班長이나 里長의 協助를 얻어서 作成하고 소위 「不在中인 常住者」(軍人, 戰鬪警察, 在所者等)를 本家에서 調査하기 때문에 就業이나 學業을 目的으로 長期間 집을 떠나 있는 非常住者까지 다수 包含될 可能性이 있어서 信賴性에 문제가 많고 흔히 過多集計되는 傾向이 있다.

〈表 5〉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 (1955 ~ 1975)

기 간	전국의 인구증가율	제주도의 인구증가율		
		자연증가⑤	사회증가⑤	
1955 ~ 1960	2.88①	-0.50①	2.3 ~ 2.4	-2.8 ~ -2.9
1960 ~ 1966	2.71①	3.15①	2.7	0.5
1966 ~ 1970	2.20②	2.80④	2.7	0.1
1970 ~ 1975	1.74③	1.80④	2.3 ~ 2.4	-0.5 ~ -0.6

① 인구센서스자료. 외국인제외.

② 尹鍾周, 「人口學」, p.127.

③ 1966-70년의 연평균증가율을 2.20%로 가정했을 경우. 필자계산.

④ 1970년 인구센서스의 제주도 조사누락율을 3%로 가정했을 경우. 필자계산.

⑤ 출생율과 인구가동을 감안한 필자 추정치.

IV. 濟州島의 人口成長要因

人口成長은 出生, 死亡, 移入, 移出의 4가지 要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 韓國의 人口成長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人口學的 要因은 바로 出生率의 變動이었다. 死亡率은 최근에도 계속 低下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速度가 매우 미미하여 人口成長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國家間의 人口移動 즉 移民도 숫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 人口成長의 중요한 變數가 되지 못한다. 6.25 動亂 이후의 우리나라 人口變動은 出生率의 上昇과 低下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濟州島의 人口變動을 考察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出生率의 變動뿐만 아니라 移入과 移出의 傾向도 매우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濟州島의 人口成長에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出生率과 人口移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出生率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한 地域人口의 粗出生率과 粗死亡率의 差로서 算出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人口成長을 精確하게 測定하기 위해서는 出生率과 死亡率에 대한 精確한 통계가 必要하다.

그러나 人口動態統計가 매우 不備한 우리 實情으로서 公式的인 人口動態統計를 가지고 出生率과 死亡率을 산출할 수는 없다. 또 濟州島를 대상으로 직접 出生率과 死亡率을 調査한 資料도 현재로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粗出生率과 粗死亡率은 特定期間(보통 1年)의 總人口數(正確하게는 年 央人口)에 대한 同期間의 出生兒數와 死亡者數의 比率로서 산출하지만 年度別 出生兒數와 死亡者數에 관한 精確한 統計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死亡率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1歲未滿兒의 比率이나 母兒比, 15歲以上 女子의 平均出生兒數등의 間接적인 자료를 통해서 濟州島의 出生力 趨勢에 대해서만 概觀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表 6>은 人口 1,000名當 1歲未滿兒의 比率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6> 年度別 1歲未滿兒의 比率

(1,000名當)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①
全 國	38.82	37.89	28.92	25.96	20.14	(20.32)
濟 州	30.25	34.29	34.85	32.02	24.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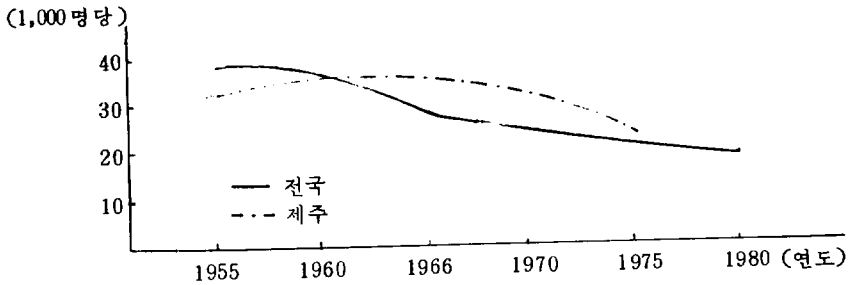
자료 : 각 년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①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속보」(2% 표본추출집계결과).

시·도별 인구는 5세 계급별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1세미만아비율은 산출하지 못하였음.

<表 6>에 의하면 濟州島의 出生力은 1960年까지 全國平均보다 훨씬 낮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60年代初부터는 반대로 全國平均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口 1,000名當 1歲未滿兒比率의 全國 平均은 1955年에 38.8名이던 것



이 점차 낮아져서 1975년에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명 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60~66년 사이와 1970~75년 사이에 두드러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²⁰⁾ 이에 비해서 濟州島の 1歲未滿兒比率은 1955년의 約 30명 선에서 1966년의 約 35명선까지 점차上昇하다가 그 이후에 低下하기 시작하여 1975년에 24.6명을 기록하고 있다. 濟州島の 出生力 變化趨勢에 특징적인 것은 全國적으로 가장 높은 出生水準을 유지하고 있던 1955~60년 기간에 濟州島는 서서히 出生力이上昇하여, 全國적으로 현저한 出生率 低下를 기록했던 1960년 이후 1970년까지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濟州島の 出生率 減少는 全國적인 傾向보다 10년이나 늦은 1970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60年代初 이후 濟州島の 出生水準은 여전히 全國平均보다는 훨씬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濟州島の 1歲未滿兒比率을 全國平均値와 비교해서 그 差異를 살펴보면 1955년에는 8.57명이나 낮았으나 1960년에는 出生率이上昇함에 따라 그 差異가 3.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1966년부터는 반대로 濟州島가 全國平均値를 훨씬 上廻해서 1966년에 5.93명, 1970년에 6.06명, 1975년에 4.48명이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歲未滿兒의 比率을 통해서 살펴본 濟州島の 出生力 趨勢는 母兒比와 15歲 이상 女子의 平均出生兒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20)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속보」(2%표본추출집계결과)에 의하면 1980년의 1歲未滿兒比率이 1975년과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1950년대 이후 baby boom을 타고 출생한 世代가 再生産期에 돌입함으로써 可妊女性人口의 絕對數가 增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7〉 母兒比와 15歲 以上 女子의 平均出生兒數

年 度	母 兒 比		平 均 出 生 兒 數	
	全 國	濟 州	全 國	濟 州
1949	696 ^①	669 ^①	—	—
1955	655	581	—	—
1960	776 ^①	698 ^①	3.95	3.70
1966	681	746	4.16	3.91
1970	591	735	3.12	3.30
1975	491	637	2.82	3.07
1980	386 ^②	419 ^②	—	—

자료 : 각년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text{母兒比 (CWR)} = \frac{P_0 - 4}{P_{15-49}} \times 1,000$$

① 高甲錫·崔英姬, 前掲論文에서 引用.

②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속보」(2% 표본추출집계결과).

母兒比는 15~49歲 女性人口 1,000名에 대한 0~4歲兒의 比率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5年間の 出生率 및 嬰兒死亡率과 女性의 年齡別 人口構造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母兒比는 그것 자체로서 出生頻度を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嬰兒死亡率이나 女性의 年齡別 人口構造의 영향이 크지않다고 가정되는 경우 同一한 人口의 地域間 出生力 水準을 비교하는 相對的 尺度로서 유용하다.

〈表 7〉에 의하면 韓國 全體의 母兒比는 1960年에 가장 높은 776名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는 매 센서스 기간마다 約 100名 정도씩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濟州島의 母兒比는 1966年과 1970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1960年부터 1975年까지 전반적으로 高率을 보이고 있다. 1970年 이후에는 濟州島의 母兒比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全國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母兒比가 과거 5年間の 出生率 動向을 반영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母兒比의 變化는 1歲未滿兒比率을 통해서 살펴본 出生率의 趨勢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0年 人口센서스 資料를 바탕으로 산출한 母兒比를 보면 1975年 이후에

도 濟州島의 出生率은 상당히 低下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5歲 以上 女子의 平均出生兒數는 과거의 累積的인 出生力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出生率의 變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단기간의 出生率 變化를 把握하기 위한 指數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出生率이 長期間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되었을 때는 平均出生兒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濟州島 女子의 平均出生兒數가 1966年까지는 全國値보다 낮았으나 1970年 이후에 全國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1970年까지 濟州島의 出生率이 高水準을 持續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²¹⁾

그러면 1960年代 이후 濟州島의 出生率이 高水準을 持續하게 된 原因은 무엇일까?

濟州島의 高出生率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要因으로서는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婚姻構造의 變化
- ② 避妊實踐率
- ③ 人工流產經驗率
- ④ 都市化의 程度

出生은 男女의 性的結合에 의해서 發生되기 때문에 婚姻構造의 變化는 出生率의 變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人爲的인 生産抑制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婚姻構造 특히 可妊年齡層女性의 有配偶率은 出生率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表 8>은 可妊年齡層女性의 有配偶率을 年度別로 整理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1955年의 濟州島 可妊女性의 有配偶率은 全年齡에 걸쳐서 全國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性別·年齡別 人口構造와 配偶關係에 대해서는 별도의 論文에서 좀더 자세히 分析하고자 하지만 당시 濟州島 女性의 낮은 有配偶率은 女性의 晩婚傾向과 日帝時 男子의 많은 海外移出(특히 日本), 1948年의 4·3事件으로 인한 많은 男性의 犧牲, 높은 離婚率등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1) 1966年과 1970年의 濟州島 女性의 平均出生兒數에 큰 差異가 나타나는 것은 女性人口의 年齡構造變化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8〉 可妊年齡層女性の 有配偶率 (%)

年 齡	1955		1960 ^①		1966		1970		1975	
	全國	濟州	全國	濟州	全國	濟州	全國	濟州	全國	濟州
15 - 19	14.3	6.71	7.03	2.48	3.81	2.40	2.84	3.37	2.59	3.05
20 - 24	75.0	69.51	64.79	55.13	47.65	46.79	42.29	48.46	37.22	45.33
25 - 29	89.7	79.23	93.11	88.34	89.80	89.82	88.38	89.45	86.79	88.62
30 - 34	89.8	78.25	91.73	83.42	93.89	90.27	94.56	91.86	94.42	92.71
35 - 39	87.0	75.99	88.15	76.12	89.21	82.42	91.95	87.80	93.22	89.89
40 - 44	81.3	69.19	82.07	70.55	82.74	69.98	84.81	76.70	88.22	83.74
45 - 49	73.6	64.17	75.96 ^②	52.01 ^②	75.24	65.15	76.85	64.68	79.08	70.78
15세이상 여자전체	63.27	54.14	62.51	54.58	60.04	55.06	59.09	56.37	57.06	55.56

資料 : 各년도 人口센서스 보고서.

① 1960년 자료는 「세는 나이」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1세를 조정하였음.

② 만 45 - 48세의 통계임.

全國 平均値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濟州島 女性の 有配偶率은 1955年 이후 점차 그 差異가 축소되어 1966년에는 出生力이 가장 왕성한 20代 女性의 有配偶率이 全國値와 거의 비슷한 水準을 나타내고 1970年 이후에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30대에 있어서도 1966年 이후에 全國과 濟州間의 편차가 점차 축소되어서 1966년에는 30~34歲層이 5% 미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1970년에는 30~34歲, 35~39歲層이, 그리고 1975년에는 40~45歲層까지 5%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代 女性의 有配偶率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全國은 1960年 이후 계속 그 比率이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濟州島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960年 이후 전국적으로 여성의 初婚年齡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濟州島 女性의 初婚年齡은 낮아지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1975년에 30歲未滿의 有配偶率이 약간 下落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서 1975年을 전후해서 濟州島 女性의 初婚年齡이 다소 높아지기 시작하는 듯하다.

이와같은 婚姻構造의 變化 - 有配偶率의 相對的 上昇이 1950年代末부터 1970年까지 濟州島의 出生力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避妊實踐率에 있어서도 濟州島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濟州島의 避妊實踐率에 대해서는 1975年 이전의 年度別 統計가 없기 때문에 그간의 자세한 추세를 밝힐 수는 없지만 1976년부터 楸子島를 제외한 濟州島 全域을 대상으로 家族計劃研究院이 실시한 「家族計劃普及極大化示範研究事業」이 추진될 때까지 濟州島의 避妊實踐率은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表 9〉 年度別 避妊 實踐率 (%)

年 度	1964	1965	1966	1967	1971	1973	1975	1976	1978
全 國	9 ①	16 ①	20 ①	20 ①	25 ①	36 ①	—	44 ③	49 ④
濟 州	—	—	—	—	—	—	19.9 ②	—	36.3 ②

① 宋建鏞·韓聖鉉, 「1973年度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 調査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p.85.

② 洪文植·朴在彬·洪性烈·朴善圭, 「家族計劃普及極大化示範研究事業 中間評價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9. p.60.

③ 朴丙台·崔炳睦·權泰淵, 「1976年度 全國 生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p.207.

④ 卞鐘和·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9. p.281.

1975年 濟州島의 避妊實踐率 19.9%는 1976年의 全國值 44%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家族計劃事業의 初期段階에 해당하는 1960年代 中葉의 全國 平均値와 같은 水準이다. 示範事業이 進行되던 1978년에는 괄목할만한 상승을 보여 36.3%의 實踐率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全國值 4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可妊年齡層女性의 有配偶率이 相對적으로 上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積極적으로 避妊을 實踐하지 않을 경우에 出生率은 자연히 높은 水準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表 3〉에 의하면 1960年 이후 韓國의 出産抑制에 人工流産의 影響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에서도 상당수의 出産이 人工流産에 의해서 抑制되었으리라 생각되

지만 濟州島의 人工流産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實態를 제대로 把握할 수가 없다. 다만 濟州島가 農村的인 性格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全國的인 人工流産經驗率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水準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참고로 地域別 人工流産經驗率의 變動趨勢를 보면 다음 <表 10>과 같다.

<表 10> 有配偶婦人(15~44歲)의 人工流産經驗率

		(%)			
		1971	1973	1976	1978
全	國	26	30	39	49
서	울	40	44	50	58
기	타	34	33	41	47
농	촌	19	24	29	38

자료: 卞鐘和·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生力 實態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9, p.512.

濟州島의 出生率에 관한 자료를 全國 平均値와 비교 검토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의 都市化程度가 韓國 全體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濟州島의 出生水準은 다분히 農村的인 性格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濟州島의 人口成長과 出生率을 他道 혹은 農村部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表 11> 年度別 市部人口比率

		(%)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①
全	國	24.9	29.9	33.6	41.1	48.4	57.2
濟	州	20.7	24.2	25.9	29.1	32.8	36.2

자료: 各년도 人口센서스 보고서.

①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전수집계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濟州島의 人口成長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出生力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濟州島의 粗出生率이나 自然增加

率에 대한 正確한 統計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1歲未滿兒의 比率이나 母兒比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濟州島의 出生力 趨勢를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筆者는 粗雜한 方法이기는 하지만 1歲未滿兒의 比率을 利用하여 粗出生率과 自然增加率의 推定을 試圖하여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實驗的인 作業에 지나지 않았음을 명기하여 둔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정위에서 착수 되었다.

- ① 센서스 기간 동안 1세미만아비율은 산술급수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 양년간의 중앙치를 평균 1세미만아비율로 간주하였다.
- ② 1세미만 연령층은 인구통계상 조사 누락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補正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센서스 통계의 연령별 조사누락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1세미만아비율과 각종 조출생율 통계를 비교하여 센서스 기간별로 1세미만아비율에 대한 補正加重値를 결정하였다.
- ③ 사망율은 전국이 동일할 것으로 보고 각종 사망율 추정치를 참고하여 각 센서스 기간별 사망율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국의 自然增加率을 算出한 결과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수치와 매우 近似한 값을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을 算出하고 이것을 다시 센서스 자료 및 인くい동통계를 감안하여 <表 5>와 같이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을 추정하였다. 비록 조잡한

<表 12> 1歲未滿兒 比率을 이용한 粗出生率과 自然增加率 算出例 (1,000명당)

기 간	구 분	1세미만아비율	보정가중치	조출생율	조사망율	자연증가율	수정된자연증가율
1955-60	전 국	38.4	+5	43.4	14	29.4	28.8
	濟 州 島	32.3		37.3		23.3	23 ~ 24
1960-66	전 국	33.4	+5	38.4	12	26.4	27.1
	濟 州 島	34.6		39.6		27.4	27
1966-70	전 국	27.4	+4	31.4	10	21.4	22.0
	濟 州 島	33.4		37.4		27.4	27
1970-75	전 국	23.1	+4	27.1	9	18.1	17.4
	濟 州 島	28.3		32.3		23.3	23 ~ 24

방법에 의한 實驗的 試圖이기는 하지만 각종 자료가 미비한 현시점에서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에 대한 대체적인 傾向성을 把握하는데는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2. 人口移動

한 社會의 人口가 封鎖人口的 性格을 갖지 않는 경우에 人口移動은 人口成長을 결정하는 중요한 人口學的 變數가 된다. 人口移動은 두 地域의 社會經濟的 條件과 移動者의 生活樣式, 價値觀등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어서 出生 및 死亡과는 달리 매우 社會的인 事實이다.

따라서 人口移動의 分析은 移動의 量과 方向뿐만 아니라 移動人口의 人口學的 特性까지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의미가 큰 것이지만 本考에서는 人口成長과 關聯하여 純移動量 만을 分析하기로 한다.

最近 濟州島의 人口移動에 關한 統計資料는 住民登錄法에 근거하여 轉出入申告를 集計한 것과 人口센서스에 의한 것이 있다. 轉出入申告에 의한 人口移動統計는 1968年 住民登錄法 改正 이후에 作成되기 시작한 것으로 「제주통계연보」에는 1969年 資料부터 수록되고 있다. 人口센서스에 의한 人口移動統計는 事後標本調査를 통해 5歲 以上 人口의 5年前 居住地를 調査하여 移動人口를 推計한 것으로 1970年 센서스부터 作成되고 있다. 이외에 高甲錫은 資料의 出處를 밝히지 않은 채 1955~60年과 1960~65年의 人口移動狀況을 그의 論文에 제시하여 分析하고 있다.²²⁾

이상의 資料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濟州島의 純人口移動量을 整理하면 다음 <表 13>과 같다.

高甲錫의 資料에 의하면 1955~60年에 濟州島는 41,193名의 移出超過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集計方式의 差異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流動人口의 대부분은 軍人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1955年 센서스의 男女人口와 1956年 年末常住人口의 男女人口를 비교해

22) 高甲錫·崔英姬, 濟州島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第2號, 1966.

〈表 13〉 濟州島의 純人口移動量

	高 甲 錫 ①	제주통계연보 ②	인구센서스 ③
1955 ~ 60	- 41,193		
1960 ~ 65	+ 17,472		
1965 ~ 70			+ 2,842
1970 ~ 75		- 9,041	- 13,992
1975 ~ 80		- 19,523	+ 1,296

① 高甲錫·崔英姬, 濟州道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2」 1966. 5세이상.

②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72 ~ 1981.

③ 5세이상. 5년전 거주지 조사.

(65 ~ 70) :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10% 표본조사추정치).

(70 ~ 75) :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5% 표본조사추정치).

(75 ~ 80) :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속보」(2% 표본추출집계결과).

보면 女子는 2,887名이 증가하고 있지만 男子는 35,457名이 감소하고 있다.²³⁾ 이 숫자는 1955年 센서스의 準家口 男子人口 35,440名과 거의一致하고 있다.²⁴⁾ 이로 미루어 1955年 센서스의 濟州島 人口에는 약 35,000餘名의 軍人이 包含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休戰後의 部隊再配置와 第1訓練所의 폐지에 따라 實際로 濟州島를 떠났을 것으로 보여진다. 軍人 이외에 軍人家族과 殘留避亂民이 다수 移出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이 기간 동안의 純移出入口 41,000名은 상당히 說得力을 가진다. 高甲錫의 이러한 推定을 어느 정도 正確한 것으로 본다면 1955~60年 濟州島 人口의 年平均增加率 -0.5%는 自然增加率 2.3~2.4%, 社會增加率 -2.8%~-2.9%로 構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65年은 濟州島가 大量移入超過를 經驗했던 時期이다. 高甲錫은 이 期間의 移入超過人口를 17,472名으로 集計하고 있다. 資料의 出處를 밝히지 않아서 算出根據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濟州島의 出生水準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너무 過多集計된 듯하다. 筆者의 推定에 의하면 당시의

23) 「제주통계연보」, 1957.

24) 「1955년 간이총인구조사보고」 pp.22~23.

自然增加率을 2.7%로 가정할 때 1960~66年の移入超過人口數는 約 9,000名 前後가 될 것으로 보인다.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 参照)

1965년부터는 移入超過現象이 현저하게 둔화되어서 1960年代末에는 오히려 移出超過의 증후를 보이고 있다.²⁵⁾ 1970年 人口센서스 10% 標本調査에 의하면 1965~70年の 移入超過人口는 2,842名으로 推定되고 있고, 自然增加率을 감안한 筆者의 推定에 의하면 1966~70年에 約 1,400名이 超過移入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수치간에 差異가 있는 것은 筆者의 推定値에 1965~66年の 超過移入人口가 빠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1960年代 後半은 1960年代初의 各種 建設事業과 觀光開發에 따른 과도한 移入超過에서 1970年代初의 移出超過로 移行되어 가는 轉換期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970~75年の 濟州島 人口는 다시 大量移出超過를 나타내고 있다. 1975年 人口센서스의 5% 標本調査에 의하면 이 기간의 純移出人口는 13,992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住民登錄轉出入申告를 集計한 「제주통계연보」에 의하면 9,041名, 筆者의 推定에 의하면 당시의 自然增加率을 2.4%로 볼 때 約 12,000名 정도의 純移出을 보이고 있다.

1970~75年 濟州島 移出人口의 轉入地를 觀察해 보면 서울 46%, 경기 14%, 부산 11%, 경북 9%, 전남 6%, 경남 6%의 순으로 나타난다.²⁶⁾ 서울과 서울 인근의 경기 및 부산 지역에 約 70%가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남, 경남등은 각각 6% 정도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産業化에 따른 離村向都의 傾向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14> 제주도 移入人口의 分布(1970-1975)

이 출 인 구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4,048	15,685	3,685	4,686	706	484	1,181	352	2,108	3,094	2,067
99.99	46.07	10.82	13.76	2.07	1.42	3.47	1.03	6.19	9.09	6.07

資料 : 「1975년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5% 표본조사 : 인구가동편) 5세이상인구.

25) 註②参照

26)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5%표본조사)「人口移動」篇.

1975年 이후의 濟州島 人口移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무어라 속단하기 힘들다. 轉出入申告를 集計한 「제주통계연보」에 의하면 大量移出을 짐작케 하지만 「1980年 인구 및 주택센서스 속보」 2% 표본추출집계 결과에 의하면 약간의 移入超過를 示唆하고 있다. 轉出入申告의 不確實性을 감안하더라도 20,000餘名の 差異는 납득하기 어렵다. 1980年 人口센서스의 最終報告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V. 結論 - 要約과 展望

지금까지 筆者는 1955年 이후의 濟州島 人口成長趨勢를 概觀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以上에 考察한 바를 要約해 보고 몇가지 展望과 問題點을 지적함으로써 結論에 대신할까 한다.

1. 濟州島의 人口成長은 1955~60年 사이에 年平均 -0.5%의 人口減少를 經驗하였지만 1960年代에는 全國적으로 人口增加率이 低下되어 가는 趨勢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全國 水準을 훨씬 上廻하는 高成長을 지속하였다.

2. 濟州島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1960年 이후 매우 높은 水準을 지속하고 있다. 1950年代 末에는 全國平均보다 현저히 낮았던 濟州島의 自然增加率이 점차 上昇하여 1960年代 初에는 全國平均과 거의 같은 水準을 보이다가 1966年 이후에는 全國平均을 훨씬 上廻하고 있다.

3. 濟州島의 높은 自然增加率은 婚姻構造의 變化와 낮은 避妊實踐率로 인해서 全國 水準보다 높은 出生率을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濟州島의 人口移動은 人口成長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移動의 方向과 移動量은 센서스 기간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人口成長을 이해하는데 錯亂的 要素로 作用하고 있다. 1950年代末의 人口減少와 1970年代 初의 낮은 人口增加率은 大量移出超過의 影響으로 分析되며 1960年代 初의 높은 人口增加率에는 大量移入超過의 影響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濟州島의 人口成長趨勢는 앞으로의 濟州島 人口現象에 관한 몇가지 展望을 可能하게 한다.

1. 「1980年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전수집계결과)에 의하면 1975~80年 濟州島의 人口成長率은 2.3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最終結果가 發表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1975~80年の 人口移動 統計들 사이에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기간의 精確한 人口增加率을 단언할 수가 없다.

2. 1975年 이후 女性의 初婚年齡이 上昇하고 있는 증후가 보이고 出生力이 旺盛한 30歲未滿女性의 有配偶率이 약간씩 下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婚姻構造의 變化가 出生率 低下에 약간의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1975年 이후 避妊實踐率이 현저하게 上昇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趨勢가 지속된다면 避妊方法의 普及이 出生率 低下에 상당히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避妊의 普及은 限界가 있는 것이고 또 家族計劃運動의 初期 段階에서는 加外希望子女數를 줄이는 過程으로서 전파가 매우 급진적이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子女價値觀(理想子女數, 男兒嗜好度 등)과의 투쟁이기 때문에 濟州島의 避妊 普及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上昇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4. 1960年 이후 소위 「baby boom」을 타고 出生한 世代가 1980年 이후에 일제히 再生産期에 돌입하게 된다. 이 年齡層이 특별히 많이 移出하지 않는 한 婚姻構造의 變化와 避妊實踐率의 上昇이 出生率 低下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可妊女性의 絕對數 增加는 出生率 上昇의 重要한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人爲的인 出產抑制, 女性의 年齡構造 및 婚姻構造의 變化와 더불어 앞으로의 濟州島 人口成長에 重要한 變數로 作用할 人口學的 要因은 바로 人口移動이다. 1975~80年の 濟州島 人口移動趨勢는 資料의 미비로 分析을 보류할 수 밖에 없지만 이점은 濟州島 開發問題와 결부해서 검토되어야 할 重要한 研究課題라 생각한다.

本 研究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資料의 貧困이었다. 經濟開發計劃에 착수하면서부터 韓國社會의 人口問題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었지만 그동안의 많은 調査研究는 거의가 全國的인 水準의 것들이었고 地方

人口에 대한 研究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매우 빈약하였다. 濟州島에 관한 研究論文이나 統計資料는 더욱 미비하였다.

이러한 資料上的의 難點들 때문에 筆者는 때로 무리한 推定을 試圖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本 研究는 많은 制約과 限界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